

개원사 동서탑·돌다리 뤼양교... 천년유물 품고 새 천년 도약

동아시아 문화도시를 가다

③ 中 취안저우(泉州·복건성)

글=박선정 동아시아문화도시 추진기획단장

동서양 연결 일찍부터 세계와 소통
개척·모험정신 뛰어난 무역 중심지
다양한 유산 바탕 문화 중심지 꿈꿔



민남건축물의 특징이 잘 나타난 취안저우 서쪽 구도심 전경. 중국의 쌍석탑 가운데 가장 높은 동서탑(가운데)이 도시의 상징처럼 우뚝 서있다.

/사진=취안저우 해협도시보 제공



개원사 경내에 있는 동탑은 높이가 48m에 이른다.

36년 전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이라는 깃발을 들었다. 중국 경제발전
을 향한 대장정의 신호탄이었다. 그 실험무대는 남부지역인 광둥성
(廣東省)과 푸젠성(福建省)이었다. 이 지역사람들은 기질적으로 돈
을 중시하는 사람들이다. 또 명분 보다는 실리를 중요시한다. 역사적
으로 볼 때 이들은 명·청대부터 소문난 중국의 10대 상방이었던 광둥
상인, 푸젠상인의 후예들로 장사와 사업수완이 뛰어났던 터이다.

중국에서는 상인집단을 상방(商幫)이라 부른다. 같은 지역에 뿌리
를 둔 상인조합이다. 취안저우상인들이 속한 푸젠상인은 현재 중국
의 6대 상방에 들어갈 정도로 막강한 네트워크를 자랑한다.

특히 지리적, 역사적으로 가까운 타이완 및 동남아의 화교상인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취안저우 출신 화교는 750만 명을 상회하
면서 푸젠성 출신 화교 총수의 6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해외로
이주한 화교들은 거주지에서도 고향의 언어인 민남어(민남방언)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를 유지해오고 있다.

그런 연유로 취안저우를 동남아 화교들의 고향이라고 말한다. 거
미줄처럼 촘촘하게 연결된 화상(華商)의 사업망을 잘 활용한 결과
취안저우시는 '국민경제특구'로 불릴 정도로 경제발전속도가 빠른
지역이 되었다. 민영기업은 매년 30% 이상 증가해 13만개를 넘었다.
2012년 말에는 중국의 세 번째 금융개혁 시범구로 지정되었다.

취안저우는 송나라 이후 중국 최대의 무역항으로 급부상했다. 아
라비아 상인을 비롯한 유라시아 각지에서 온 상인들의 집단거주지
가 형성된 것도 이 시기다. 취안저우항을 통해서 도자기와 직물, 약
재, 문방구들이 해상 실크로드를 거쳐 서쪽으로 수출됐고 대신 아
라비아 페르시아 상인들을 통해 인도산 향료를 수입했다.

취안저우는 일찍이 세계와 소통해온 문화교류와 융합의 현상이었
던 것이다. 이들의 개척정신과 모험정신은 스스로를 진취적이며 상

술이 뛰어나고 생활력이 강한 상인으로 단련시켰다.

푸젠성은 상인정신을 바탕으로 이 도시가 자랑하는 산업은 의류
와 신발 등 복장산업이다. 이들이 생산하는 의류브랜드는 중국올림
픽위원회 공식파트너로서 중국패션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또 취안
저우에서 가장 부유한 진장시(晉江市)는 중국운동화 생산의 메카로
서 세계적인 유명메이커의 OEM공장이 이곳에 몰려있다. 취안저우
시내 곳곳에는 이 도시가 과거 국제도시였음을 증명하는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슬람교, 불교, 도교, 기독교, 마니교, 라마교 등 다양한 종교와 관
련된 유물들도 도처에 존재한다. 이 땅에는 7세기 경 이슬람교가 중
국에서 가장 먼저 들어왔는데 북송시대에 이슬람 양식으로 건축한
청정사(淸淨寺)는 가장 오래된 이슬람교 사원이다. 문루부터 당대
유형하던 중세 아랍풍의 사원 양식으로 지었다. 당시 아랍상인들이
몰려들었다는 증거다. 또 중국으로 파견된 4명의 이슬람 성인을 모
신 무덤인 영산(靈山)이 유명하다.

취안저우를 품고 있는 강은 진강(晉江)과 뤼양강(洛陽江)이다. 취
안저우 사람들이 어머니강 이라고 부르는 진강가에 는 당나라 때 세
워진 천년고찰 개원사가 있으며 그 경내에 동서탑(東西塔)이 웅장한
자태로 서있다. 이 동서탑은 남송시대에 세워진 5층 석탑이다. 중국 고
대 석조 건축물 중 보물에 해당한다. 높이가 48m가 넘는 동탑은 '중
국석탑우표' 4장중 하나가 되었다. 이 탑들은 과거에 등대역할도 했
다고 한다. 위엄스럽게 서있는 동서탑을 보면서 취안저우의 진취적
기상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뤼양강(洛陽江)은 옛 수도 낙양에서 피난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
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뤼양강에는 유서깊은 천년 돌다리 뤼양교가 있
다. 바다와 연결되는 석교 중 중국에서 가장 오래 되었다고 한다. 배

모양으로 초석을 쌓고 그 위에 장방형 돌을 겹겹이 올려 800m가 넘
는 다리를 축조했는데 그 엄청난 규모에 압도당할 수 밖에 없었다.

중국을 대표하는 상인정신으로 무장한 취안저우는 다시 한 번 화
려했던 옛 영화를 재현하고자 한다. 첫 번째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
정된 것은 좋은 호재가 아닐 수 없다.

이들은 당나라 시대부터 바다를 통해 세계를 상대로 대외무역을
주도한 사람들이다. 오늘날에는 민남문화의 발상지라는 자부심으로
정체성을 지켜오면서 화상(華商)네트워크를 통해 세계와 소통해왔
다. 이번 문화도시 프로젝트의 목표를 '세계로 향한 다문화도시 건
설'로 정한 까닭이다. 고대 '해상 실크로드'를 개척한 취안저우인들의
머리와 가슴속에는 무역의 중심지를 넘어 문화의 중심지를 향한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다.



북송시대에 건립한 돌다리는 바다와 연결되는 석교중 가장 오래됐다.

'만' 가지 알찬정보와 '물' 만난 살림꾼들의 '상' 상초월 비법!

살림9단의 만물상

매주 일요일 밤 11시 MC김원희 | 안문숙 이광기 김한석 김민희

이 프로그램은 www.tvchosun.com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